

**GCC 국가의 2009년 경제동향 및 2010년 전망**

**1. 2009년 경제동향**

□ 원유가격 하락 및 생산량 감소로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

- GCC<sup>1)</sup> 국가의 석유부문은 GDP의 45%, 수출의 79%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가격 및 생산량이 GCC 국가의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.
-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08년 7월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았던 원유가격이 2009년 2월 34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음.
  - 연도별 평균 원유가격 (WTI, 배럴당)  
2007년 72달러, 2008년 100달러, 2009년 62달러, 2010년(전망) 75달러
- 또한, 금융위기 이후 원유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OPEC의 4.2백만 배럴/일 감산결정에 따라 GCC 국가의 원유 생산량도 감소하였음.

**<표 1> GCC 국가의 OPEC 쿼터 추이<sup>2)</sup>**

(백만 배럴/일)

국 가	2007년 11월	2008년 11월	2009년 1월
사 우 디 아 라 비 아	8.94	8.48	8.01
아 랍 에 미 리 트	2.57	2.43	2.23
쿠 웨 이 트	2.53	2.40	2.22
카 타 르	0.83	0.78	0.73
<b>G C C</b>	<b>14.87</b>	<b>14.09</b>	<b>13.19</b>

자료 : OPEC

1) 걸프협력회의(Gulf Cooperation Council: GCC)는 바레인, 쿠웨이트, 카타르, 오만,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(UAE)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, 세계원유 매장량의 40%,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3%를 차지하고 있음.  
 2) GCC의 OPEC 쿼터는 13.19백만 배럴/일로 OPEC의 전체 쿼터 24.83백만 배럴/일의 53%를 차지하고 있음.

- 이러한 원유가격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2003년 이후 지속된 고유가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5~6%대의 고성장을 이룩했던 GCC 국가는 2009년 0.7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음.
- GCC 국가는 비석유부문에서는 3.2%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, 석유부문에서 5.2%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됨.
-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레이트, 쿠웨이트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,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, 오만도 원유 생산량 확대에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정됨.

**<표 2> GCC 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**

(%)

국 가	2005	2006	2007	2008	2009 <sup>e</sup>	2010 <sup>f</sup>
바 레 인	7.9	6.7	8.1	6.1	3.0	3.7
사우디아라비아	5.6	3.2	3.3	4.4	-0.9	4.0
아랍에미리트	8.2	9.4	6.3	7.4	-0.2	2.4
오 만	4.9	6.0	7.7	7.8	4.1	3.8
카 타 르	9.2	15.0	15.3	16.4	11.5	18.5
쿠 웨 이 트	10.6	5.1	2.5	6.3	-1.6	3.2
G C C	<b>6.9</b>	5.5	5.0	6.4	0.7	5.2

자료: IMF

□ 세계경기침제로 물가상승률 크게 하락

- GCC 국가는 2008년 고유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, 2009년에는 부동산 및 상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.7%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.

□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폭 크게 축소

- 2008년 5,750억 달러에 이르렀던 석유수입(收入)이 2009년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3,27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GCC 국가의 재정수지 흑자폭은 2008년 GDP 대비 27.4%에서 2009년 5.3%수준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.
- 또한, GCC 국가는 2008년 2,823억 달러, GDP 대비 26.3%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제유가 하락 및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560억 달러, GDP 대비 6.3% 수준으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.
- GCC 국가의 2008년 총수출규모는 8,205억 달러였으나, 2009년에는 5,743억 달러로 크게 축소됨.

<표 3> GCC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

(%, 억 달러)

구 분	2005	2006	2007	2008	2009 <sup>e</sup>	2010 <sup>f</sup>
소비자물가상승률	2.6	4.3	6.3	10.8	3.7	3.8
재정수지 / GDP	20.6	22.4	17.6	27.4	5.3	10.4
경 상 수 지	1,695	2,107	2,004	2,823	560	1,486
경상수지 / GDP	27.4	28.8	24.8	26.3	6.3	14.2

자료: IMF

□ 금융시장은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나, 불확실성 상존

-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였으나, 2009년 3월 이후 국제유가 회복으로 주가도 오름세로 전환됨.
- 2009년 1/4분기 이후 경기회복 조짐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세에 힘입어 GCC 국가의 신용부도스왑(CDS)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, 2009년 11월말 두바이 정부의 채무상환유예요청으로 재차 급상승하였음.

**<표 4> GCC 국가의 5년만기 국채에 대한 CDS 스프레드 추이**

(basis points)

구 분	2009. 2. 17	2009. 5. 29	2009. 10. 30	2009. 11. 27	2010. 2. 25
사우디아라비아	335	165	70	111	82
두 바 이	977	510	299	647	599
아 부 다 비	475	247	97	176	147
카 타 르	380	185	85	120	103
바 레 인	675	400	151	222	196

자료: Bloomberg

## 2. 2010년 경제전망

### □ 유가상승 및 세계경기회복에 힘입어 5.2% 경제성장 전망

- 2010년 평균 국제유가는 75달러로 2008년의 100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나, 2009년의 62달러에 비해서는 21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, 원유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CC 국가의 경제성장도 회복되어 5.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 - 2010년 석유부문은 5.5%, 비석유부문은 4.4%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□ 2009년에 이어 물가상승률 안정세 지속

- GCC 국가의 재정확장정책 지속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가격 등의 인상으로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,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0년에도 3%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□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

- 국가유가 상승, 원유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입의 확대로 2010년 재정수지 흑자폭은 GDP 대비 10%대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.

- 또한, 세계원유 수요증가로 GCC 국가의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,486억 달러, GDP 대비 14.2%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GCC 국가 1인당 국내총생산 (GDP per Capita) 증가

- 2009년 국제유가 하락 및 GDP 성장세 둔화로 GCC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2,878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28,424달러 대비 감소하였으나,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26,22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 - 2010년 GCC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카타르가 94,783달러로 GCC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2010년 동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연간 77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인함.
  - 카타르에 이어 UAE (50,688달러), 쿠웨이트 (37,536달러), 바레인(26,598달러), 오만 (21,134달러), 사우디 (16,297달러) 순임.
  - GCC 국가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증가율도 높아 GCC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16,297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단일통화 출범 등 GCC 국가의 경제통합 진전

- GCC는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중이며, 2009년 12월 연례 정상회의에서 연합군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 출범을 위한 통화협정을 발효시켜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음.
- 그러나,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만을 제외한 4개국만이 금번 통화협정 발효에 참여함에 따라 향후 단일통화 출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.

책임심사역 박대원(☎02-3779-6651)  
E-mail : [parkdw@koreaexim.go.kr](mailto:parkdw@koreaexim.go.kr)